| 사회적 대화 현장 |

“우리에겐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서울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이동희 〈참여와혁신〉 취재기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지난 1월 19일, 서울시는 불평등이라는 오늘을 살고 있는 청년들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이하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다. 범사회적 대화기구는 앞으로 2년 동안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범세대적·범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불평등에는 이자가 붙는다”

지난 1월 19일,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출범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평등에는 이자가 붙는다”며 “뭐라도 해야만 한다”고 밝히며 행사의 막을 올렸다.

불평등에 붙는 이자는 무엇일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출발부터 가난하게 자란 소년은 가난한 청년이 되고, 가난한 중년이 되고, 더 가난한 노년이 된다. 출발부터 집이 없던 사람은 더 작은 전셋집, 더 비좁은 월세집으로 밀려난다”며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있다. 일상이 된 소득불균형과 자산 격차가 대물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9일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출범행사'가 개최됐다. ⓒ 서울시

서울시 범사회적 대화기구는 '청년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정한 출발선이 필요하다'는 우리 사회 공감대가 형성돼 만들어졌다. 청년 불평등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의 장이다.

범사회적 대화기구는 출범으로부터 2년 간 운영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는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열어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는 학습기를 거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6월에는 분과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공론장을 개최하며, 올해 10월에는 불평등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 분과별 활동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불평등 아젠다(agenda)를 심화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약속문을 2022년 1월 서울시에 제출하는 것을 최종 과제로 한다.

범사회적 대화기구는 공개모집 시민위원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 불평등 국내외 학자, 오피니언리더, 유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불평등 전문가 등으로 분과 운영 실무

를 지원하게 되는 '실무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총 100여 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5일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해 공정·격차해소, 사회·정치참여, 분배·소득재구성 3개 분과별로 15명씩, 총 45명의 분과위원을 선정했다.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총 239명이 공개모집에 지원했으며, 시민위원은 성별, 연령 등을 안배한 추첨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세대를 넘나드는 대화의 장을 열고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론장을 열겠다는 취지에서 추첨제를 도입했다.

또한, 세대 간 연대를 통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타파하고자 청소년, 청년, 중장년을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을 위촉했다. 공동위원장에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 불평등을 연구한 신광영 중앙대 교수, 청년수당 참여자이자 「아빠의 아빠가 됐다」를 집필한 조기현 작가, 청소년 거버넌스 활동에 적극적인 이정은 학생(자영고등학교 2학년, 여)을 위촉했다.

신광영 공동위원장은 "과거의 청년, 현재의 청년, 미래의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청년 불평등으로 그 미래가 어둡고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한국이 새로운 실험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례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불평등 심화 현상에 좌절하기보다는 여러 세대가 머리를 맞대 양극화를 줄이면서도 성장 가능한 미래를 그려보자는 것이 범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하는 이유"라며 "범사회적 대화기구가 불평등한 사회구조 타파에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내용은 지난 1월 19일 열린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출범행사'에서 청년문제의 당사자인 박혜진 대전 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가 TED 형식의 '7분 마이크'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N포세대는 청년문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 박혜진 대전 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박혜진 대전 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 서울시 유튜브 갈무리

"저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 청년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대전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 청년들이 직접 만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논의하는 활동을 하는 곳인데요.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청년 활동을 하면서 겪은 불평등,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청년은 N포세대로 불립니다. N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과 희망을 포기한 청년세대를 말합니다. 오늘날 청년세대가 치열한 취업경쟁과 높은 주거비와 같은 여러 악조건 속에 놓인 세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흔히 N포세대의 문제로 다뤄지는 청년문제는 청년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청년문제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특히 청년문제의 주체로 여겨지지 않는 수많은 청년들인 고졸청년, 지방청년, 여성청년 등 여러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중요 문제로 인식되지 못합니다. 이들은 학력, 지역, 젠더 등의 이유로 자원과 기회를 분배받는데 실질적인 불평등을 겪고 있지만, 자신들이 겪는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는 데 있어 들려줄 권리마저 박탈당한 존재들입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진다는 거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주로 대학생 청년인 경우가 많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은 일자리 정책이나 복지 정책 등 여러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고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 노동의 경우에도 대학생이나 대졸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의 능력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2년제 대학

을 나오긴 했지만 4년제 대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인식이나 대우 측면에서도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꼭 대학에 가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현장에서 배우고 습득한 이론과 지식으로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대학 졸업자, 특히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우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살려면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라는 인식을 깨트리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와 같이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도 존재합니다. 저는 저의 고향인 대전을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떠날 마음은 없지만, 수도권에서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면서 불편함을 겪은 적이 많았습니다.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고 활동을 하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도 한정적입니다. 지방에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 지방 기반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주변에 제 친구들은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방에서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수도권 청년들에 비해 공모전이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경험도 많이 부족합니다. 필요한 경험을 쌓기 위해선 서울로 가야만 합니다. 서울에서 일을 하는 지방청년들은 서울권 대학 청년들이 형성한 네트워크에서 소외돼 암묵적인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지방이라는 이유로 지방지사에 발령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문화생활 인프라나 좋은 일자리 등 여러 자원과 기회들이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불평등도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현재의 삶은 건사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연애나 결혼을 꿈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여성들에게 출산이나 결혼은 미래의 인생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내 경력이 단절될까 우려되는 마음 때문에 쉽사리 결혼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육아와 가사노동 이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주어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결혼도 출산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성으로서 일터에서 겪는 불평들도 있습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지 못하고 남성과 동일한 노동을 해도 동일한 임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무하는 환경 속에서도 여성이 커피 심부름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등 성차별적인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과 가정에서 차별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공정성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작년 조국 사태는 많은 이들로부터 불공정이라는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재학하는 청년들은 그것이 불의하다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의를 느끼기보다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현실에 체념하고 냉소하는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청년들의 경우 이들은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자원과 기회를 분배받는 데 있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놓여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절차상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수많은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년문제에는 계급, 학력자본, 지역격차, 젠더불평등과 같은 여러 문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청년 문제를 단순히 포기 문제로 치환하지 않고 청년들 내부 차이에 주목할 때 우리는 청년 문제가 단순히 특정 세대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구조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질 권리가 박탈된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것입니다. 사회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준비가 돼 있고 비로소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